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30일)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난치병 환아에게 전한 따뜻한 나눔 선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2회 국내 · 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전달식 및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이자 재단 이사장인 진우 스님은 2억 4000만 원을 국내 · 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으로 전달했으며, 9명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기금을 모금해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2년 동안 900여 명의 국내 및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약 2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취임 50일 진우스님 '포교 진흥' 강조

16일 조계사서 공개 108배…부 · 실장 스님 등도 참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16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취임 50일을 조계종 총무원은 이례적으로 진우 스님의 108배 현장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28일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6시 50분경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개인적 원력으로 시작했기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나 재가 종무원들이 부담될까 알리지 않고 108배를 시작해 그동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공개 108배는 사서실 사서 지현 스님의 죽비에 맞춰 조계사 대웅전에서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 약 30분간 진행됐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침마다 예불을 하지만, 총무원장 소임을 맡게 된 이후 가끔 수행자임을 잊을 때가 왕왕 있다. 그래서 출가 초심을 상기하기 위해 108배를 시작했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108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상기하고 수행 정진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면서 "한국불교가 잘 돼야 국민들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으로 '포교로 세상을 편안케 하겠다'는 원력을 108배를 하며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모든 중생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포교"라며 "종단에서는 여러 불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불자가 되고, 불자가 됨으로써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을 열겠다"고 발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차담에서도 포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우 스님 "취임 이후 50일을 종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불사와 종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며 "포교 진흥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하다"고 안타까워하며 "조상들이 믿고, 신봉했던 우리 불교가 다시 한 번 부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불교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16일 취임 50일을 맞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8배를 하고 있다.

공개 108배 이후 기자들과 차담
"종단 불사 본궤도 올리려 노력
불자 부족… 포교 진흥책 고민"
열암곡 마애불 立佛로 신심 고취
상월결사 법인화, 종단 사업 결합

제37대 집행부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운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도 '신심 고양'을 위한 종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국민들에게 제안한데 이어,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해당 불사를 제1 종책 과제로 확정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한 바 있다.

11월 16일 차담에서도 진우 스님은 "아름답게 조성된 부처님을 엎어진 상태로 모시는 것은 후손된 도리도 아니고 불자로서의 자세도 아니다"면서 "부처님의 호상이 정말 아름답다. 바로 모시게 되면 신심 고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마애불을 바로 모시기 위해 불자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일단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선조들이 불교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해왔는지, 불교가 국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9일로 다가온 상월결사 인도 순례 참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의 법인화와 종단 등록이 진행돼 종단 사업으로 결합할 수 있다"며 사실상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종단 사업임을 확인했다.

스님은 "입재 참여는 어렵고 회향 무렵에 참여하려 한다. 내년이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와 함께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 법계도 왜곡 공분
가톨릭에 "사과하라" 촉구

스님 · 불자들 1인 시위… 종회의원 항의방문도

한국불교의 수행체계인 법계도를 왜곡 전시한 가톨릭계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진 불교계의 비판에 서소문역사박물관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11월 14일 오후 결국 법계도 왜곡 나전칠화를 철거했지만, 불교계가 가톨릭계에 요청한 공식사과는 없어 이에 대한 불교계의 공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계는 신라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가톨릭 상징으로 안내하는 등 무단도용과 왜곡을 일삼은 작품이 서소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것에 반발, 가톨릭계에 꾸준한 철거와 사과를 요청해 왔다.

합천 해인사는 지난 10월 13일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서소문역사박물관장, 옹청박물관장을 상대로 전시작품 철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해인도 도용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 불교와 해인사에 정중한 사과를 통해 종교간 화합의 길, 국민화합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길 당부한 바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외원회도 10월 26일 성명을 내고 "왜곡 법계도는 명백한 종교폄훼로 종교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제작을 전시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전시주체들은 불교계와 전국민에게 공식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구본사는 10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종교역사왜곡 공정'을 멈추고 종교화합과 국민화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전개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한국 천주교에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고운사 등 전국사찰들도 나서 서울시와 가톨릭계에 책임을 촉구했다.

불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불교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오봉 스님은 11월 11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불교상징 법계도를 천주교 전시물에 도용한 서소문박물관과 천주교서울대교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종교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1인 시위는 가톨릭의 공식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 10여 명으로 구성된 불자들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서소문박물관과 서울시청, 중구청 앞에서 팻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봉 스님은 11월 11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가톨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월부터 불교 항의성명 이어져
가톨릭 측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과없이 문제 작품 일방적 철거

조계종 종회의원들은 11월 18일, 법계도 왜곡 도용과 관련,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는 11월 10일 226회 정기회에서 '천주교 해인도(법계도) 도용에 대한 사과 및 전시물 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천주교서울대교구가 서울 중구청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소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화엄일승법계도 끝에 십자가를 단 대형 나전칠화가 걸려 '불교 왜곡' 논란이 벌어졌다.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서소문 역사박물관은 "해인도의 형상은 우리 전통문화 중 하나"라며 "나전칠화는 해인도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면서 철거 대착 등에 대한 답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 가르침의 상징
'법계도(해인도)' 도용 · 왜곡한 한국천주교 참회하라! 사과하라!

"화엄경 핵심교리를
응축한 상징, 해인도!
엄연한 불교의 상징이자
불자들이 지켜야할
성보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한국천주교의
해인도 무단도용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즉각 참회하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한국천주교는
다종교사회 종교갈등을
불러올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신도회

"이제는 불교 법계도도
천주교 선교에 사용하나?
상식을 넘어선
선교행위 중단하라!"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불교폄훼한
서소문 역사박물관,
법계도 끝이 십자가인 것은
명백한 불교폄훼 일환"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법계도의 묵주 변형은
종교역사 왜곡이자
종교갈등의 시작!
한국천주교는 참회하라."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상대방 종교를
폄하하면서 종교 우위를
다지려는 천주교의 행위를
규탄한다!"
-디지털불교대학 동문회 부울경지부

"한국불교의 상징인
법계도를 왜곡한 천주교는
참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